Original Article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25, Vol. 38, No. 3, 41-58

ISSN(Print) 1229-0718
ISSN(Online) 2671-6542
https://doi.org/10.35574/KJDP.2025.9.38.3.41

OPEN ACCES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과 우울 간의 관계: 부모 양육 특성의 잠재조절효과

Received: July, 15, 2025
Revised: September 5, 2025
Accepted: September 8, 2025

이화진[1], 공영숙[2], 임지영[3]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강사[1]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강사[2]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교수, 경북대학교 장수생활과학연구소 연구위원[3]

교신저자: 임지영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생활과학대학 417호

E-MAIL: limj@knu.ac.kr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Disengagement Syndrome and Depression in Children: The Latent Moderating Role of Parenting Characteristics

Hwajin Lee[1], Youngsook Kong[2], Jiyoung Lim[3]
Major in Child & Family Studies, School of Child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ecturer[1]
Major in Child & Family Studies, School of Child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ecturer[2]
Major in Child & Family Studies, School of Child Studies · CBA (Center for Beautiful Ag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3]

ABSTRACT

최근 학자들은 느리고 지연된 운동성과 혼란스럽고 굼뜬 인지적 기능을 동반하는 인지이탈증후군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과 우울 증상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퍼빙과 긍정적 정서표현성의 잠재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4~6학년 아동 529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고, SPSS 27.0과 Mplus 8.1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잠재조절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퍼빙과 긍정적 정서표현성의 조절효과를 각각 독립된 모델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은 우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퍼빙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셋째,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의 자기보고식 자료를 통해 인지이탈증후군이 아동기 우울을 예측하는 개인 내적 취약성임을 확인하였고,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부모 및 가족 차원의 치료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인지이탈증후군, 우울, 퍼빙, 정서표현성, 잠재조절구조방정식

© Copyright 2025.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www.kci.go.kr

최근 초등학교 아동의 우울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진료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초등학생 아동의 우울증 진단율이 2.4배 증가하였으며(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 이는 아동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초등교사노동조합, 2025).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의 우울 증상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우울한 아동은 또래에게 호의적이고 친밀한 반응을 보이기 어려우며(Gorrese, 2016; Sentse et al., 2017), 또래 괴롭힘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Christina et al., 2021). 또한, 수면의 어려움으로 생물학적 면역 시스템 기능이 저하되면서 건강 문제도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Jamnik & KiLalla, 2019; Nelson et al., 2013). 더욱이 우울한 아동은 우울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미디어 과사용 및 중독 위험성이 높고(Pace et al., 2019), 음란물과 공격적 영상에 노출되기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박혜림, 박성옥, 2016). 한편, 아동기 우울은 무기력하고 즐거움이 상실된 성인의 주요 우울 증상과는 달리(Cytryn & McKnew, 1972), 반항적이며 일탈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김진주, 조규판, 2012; Malmquisy, 1977). 즉, 과거에 비해 저연령화된 우울은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과 행동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성인과는 다른 가면적인 형태로 나타나 시의적절한 개입과 치료를 놓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우울 증상을 예방하고 조기 개입하기 위한 다각적인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국외 학자들은 아동의 우울을 이해하기 위해 인지이탈증후군(cognitive disengagement syndrome) 증상에 주목하고 있다(Barkley et al., 2022; Becker et al., 2023). 인지이탈증후군은 느리고 지연된 운동성 저하와 외부로부터 분리된 사고, 혼란스러운, 졸린 인지적 기능 저하를 보이는 증상을 말한다. 종래에는 굼뜬 인지적 템포(sluggish cognitive tempo)로 불렸으나, 이러한 용어가 증상의 핵심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내담자에게 모욕적인 인식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증상에 대한 명명법이 수정되었다(Becker et al., 2022).

1980년 초기에 알려진 인지이탈증후군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의 하위 유형인 부주의 유형(ADHD-IN)으로 여겨졌다. 즉, 전문가들이 과잉행동 및 충동성과 구분되는 부주의 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인지이탈증후군 증상을 활용해왔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인지이탈증후군이 지닌 독자적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이를 부주의와는 구별되는 독립된 증상군으로 인정하였다(Barkley, 2016). 예를 들어, 인지이탈증후군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는 ADHD와 문제행동 간의 관계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Becker 등(2023)은 인지이탈증후군 수준이 높을수록 다른 내재화 증상에 비해 우울 수준이 현저히 증가했으며, 특히 ADHD 증상에 비해 자살 사고와 위험을 강력하게 예측하였다(Becker et al., 2020). 이처럼 인지이탈증후군의 독립성은 임상 집단과 비임상 집단에서 일관성 있게 보고되었다(Barkely, 2013; Milich et al., 2001). 따라서 현재에 인지이탈증후군은 ADHD와는 다른 독립된 요인으로서 개인의 사회적·학업적·신경심리학적 기능에 손상을 일으키는 개인 내적 취약성으로 정의되고 있다(Garner et al., 2010).

주목해야 할 점은 인지이탈증후군이 아동의 우

www.kci.go.kr

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Bernad et al., 2014; Servera et al., 2018). 학자들에 따르면, 인지이탈증후군은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독립된 증상이며, 두 증상 간의 개별성은 종단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보고되었다(Burns et al., 2013; Fredrick et al., 2022). 예를 들어, Bernad 등(2016)은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인지이탈증후군은 3학년 시기의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이러한 경향성은 서구의 여러 문화권에서 일관성 있게 발견되었다. 더욱이 다른 임상적 증상과 비교하여 인지이탈증후군은 우울을 포함한 내재화 문제행동을 더욱 잘 예측하였다(Camprodon-Rosanas et al., 2016; Lee et al., 2014). 그러나 현재로서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조영경, 하은혜,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인지이탈증후군과 우울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인지이탈증후군 증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성장기에 있는 아동은 가족 내 상위체계인 부모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아동의 우울은 부모의 양육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권미나, 이진숙, 2023; 신미지, 김태경, 2013; 윤소진 외, 2021). 특히 청소년기 정서장애를 예측하는 경로를 개념적 모델로 제시한 Rapee 등(2019)에 따르면, 개인 내적인 위험 요인과 우울 간의 관계는 정서적 경험을 통해 조절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모델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아동의 정서적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육 요인으로서 부모의 퍼빙과 정서표현성을 주목하였다. 먼저, 최근 미디어 기기와 콘텐츠 발달로 나타난 양육 현장에서 새롭게 관찰되는 행동으로 퍼빙(phubbing)을 통해 아동의 우울 증상을 이해하고자 한다(Bai et al., 2020). 선행연구에 따르면(Stockdale et al., 2018; Wang & Qiao, 2022), 부모가 아동과 함께하는 시간에 자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그 내용에 집중하느라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소홀한 반응을 보이는 퍼빙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우울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즉, 스마트 기기에 과도한 몰입으로 인해 자녀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 결과로써 아동의 우울이 촉발되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 특성은 아동의 우울을 보호하기도 한다(윤소진 외, 2021). 대표적인 긍정적 양육 관행으로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있다(Morelen et al., 2014).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과 사랑, 칭찬 등의 긍정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할수록 아동의 우울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Lindsey et al., 2013; Luebbe & Bell, 2014). 또한, 부모의 온정적이고 정서적으로 지지에 자주 노출될수록 아동은 사회적.정서적 유능감을 보였다(김주련, 송하나, 2018; 문영경, 2021; 유은희, 임미옥, 2006). 이처럼 본 연구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 특성으로서 퍼빙을, 긍정적 양육 특성으로서 정서표현성을 고려하여 아동의 우울 증상을 예측하고자 한다.

아동의 호소하는 문제는 개인의 내적 특성이나 환경적 특성 중 어느 한 가지로 이해하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어 두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아동의 우울은 개인 내적인 취약성인 인지이탈증후군과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부모의 퍼빙 및 긍정적 정서표현성의 상호작용으로 그 심각성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인지이탈증후군과 아동기 정서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www.kci.go.kr

예로 Fredrick 등(2019)은 아동기에 부모의 갈등에 자주 노출되거나, 부모에게 받은 칭찬과 인정이 적을수록 대학생의 인지이탈증후군으로 인한 우울 증상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국내 연구(주효은, 김정민, 유선미, 2024)에서는 부모의 애정적 양육과 자녀에 대한 자율성 지지와 같은 긍정적 양육 행동이 아동.청소년의 ADHD 증상과 우울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정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퍼빙의 조절효과와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의 조절효과를 개별 모형으로 각각 밝히고자 한다. 이때,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이 ADHD와 다른 증상이긴 하나 공병율이 높다는 선행연구(Mayes et al., 2024)를 고려하여 본 분석에서 ADHD 증상을 통제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학령기 아동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이를 위한 가족 차원의 중재 및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본 연구의 결과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 문제 1.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와 우울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퍼빙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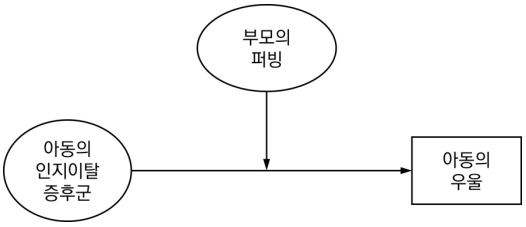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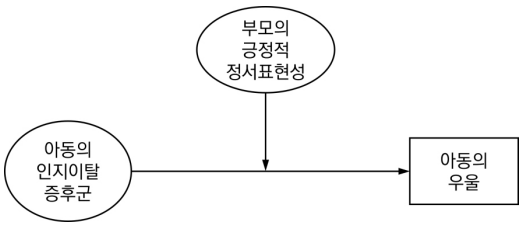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2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학령 후기에 속하는 초등학교 4~6학년 아동 529명이다.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정보를 살펴보면, 성별은 남아 263명(49.7%), 여아 266명(50.3%)이었고, 학년은 5학년이 271명(51.2%)으로 가장 많고 4학년이 161명(30.4%), 6학년이 97명(18.3%)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출생순위는 둘째가 228명(43.1%)로 가장 많고, 첫째가 184명(34.8%), 외동이 68명(12.9%), 셋째 이상이 49명(9.3%)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가족구성은 아동+부모+형제/자매가 396명(74.9%)으로 가장 많고, 아동+부모가 66명(12.5%), 아동+부모+형제/자매+친인척이 46명(8.7%), 아동+한부모+형제/자매가 9명(1.7%), 아동+한부모 3명(0.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와 친인척 혹

www.kci.go.kr

은 한부모와 친인척으로 구성된 가족구성은 7명(1.3%)이었고, 불성실한 응답은 2명(0.4%)이었다.

연구도구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은 정소희(2019)가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용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아동이 자기보고식으로 평정하며, 총 11문항으로 백일몽(daydreams) 3문항, 졸린(drowsy) 3문항, 느린/굼뜬(slow/sluggish) 5문항의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항상 그렇다(3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의 예시는 '나는 무언가를 할 때 행동이 느리다' 등이 있다.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느리고 지연된 인지적.행동적 특성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값은 백일몽 .68, 졸린 .72, 느린/굼뜬 .75이며, 전체 .86이다.

아동의 우울

아동이 지난 2주간 경험한 우울 증상을 자기보고식으로 평가하기 위해 김지혜 등(2019)이 타당화한 한국어판 아동우울척도 2판(Korean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2nd edition) 단축형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2문항이며, 하나의 문항에 3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지는 1점에서 3점까지로 점수가 부여된다. 아동의 우울 점수가 높을수록 지난 2주간 정서적으로 우울한 기분을 느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기능의 어려움을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문항 예시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합치도 Cronbach's α값은 .84이다.

부모의 퍼빙

아동이 가정에서 지각한 부모의 퍼빙은 Robert & David (2016)가 개발한 Partner Phubbing Scale을 Pancani 등(2021)이 수정 및 번안한 Parental Phubbing Scale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자가 1차로 번역하였으며, 이후 아동학 교수 1인과 영어영문학 복수학위를 가진 아동학 박사 1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아동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퍼빙에 대해 자기보고식으로 평정하였고, 각 7문항으로 총 14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보고하는 5점 Likert 척도이다. 문항 예시는 '나와 함께 밥먹을 때도 스마트폰을 꺼내서 확인하신다' 등이 있다. 부모의 퍼빙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관찰한 부모의 퍼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고, 이는 가정 내 정서적 환경이 부정적임을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값은 아버지 퍼빙 .79, 어머니 퍼빙 .78이다.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성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Kim (2002)이 Self-Expressiveness in Family Questionnaire 척도(Halberstadt et al., 1995)를 수정 및 번안한 한국판 가정에서의 자기표현질문지(K-SEFQ) 단축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긍정적 정서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긍정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아동이 자기보고식으로 평정하며, 아버지와 어머니 각 12문항으로 총 24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1점)'에서

www.kci.go.kr

'매우 그렇다(5점)'로 보고하는 5점 Likert 척도이다. 문항 예시는 '엄마(혹은 아빠)는 가족을 자연스럽게 껴안는다' 등이 있다.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성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이는 가정 내 정서적 환경이 긍정적임을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값은 아버지의 긍정적 정서표현성 .91,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 .90이다.

통제변인

본 연구의 통제변인은 아동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측정 점수이다. Burn 등(2015b)이 아동·청소년의 행동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Child and Adolescent Behavior Inventory (CABI) 교사용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에 대해 아동의 담임교사가 평정하는 것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 6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증상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분석에서는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 값은 .96이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국내 6개 시·도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교사 커뮤니티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홍보하여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학급의 교사를 대상으로 유선 혹은 대면으로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재안내하였다. 이후, 각 학급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연구 내용을 홍보하였다. 학급 사정에 따라 서면 혹은 온라인으로 학부모의 동의서를 발부하고 이에 동의한 아동만을 대상으로 2025년 9월 9일부터 9월 26일까지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각 학급에 비치된 태블릿을 통해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소요 시간은 약 15분 내외이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7.0과 Mplus 8.11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첫째,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성을 파악하고,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퍼빙 및 긍정적 정서표현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잠재조절구조방정식(Latent Moderated Structural equation: LMS)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절변수인 부모의 퍼빙과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연속변수이므로 연속형 변수의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LSM 접근법의 3단계 절차를 시행하였다. 1단계는 상호작용항이 없는 모델을 추정하고, 2단계는 상호작용항이 있는 모델을 추정한다. 이후, 2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면, 3단계에서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라 심층적으로 조절효과를 파악하는 추가분석을 진행한다. LSM 접근법에서는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를 생성할 필요가 없으며, 잠재변수끼리의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접근은 비정규분포 자료에서도 모수를 편향 없이 추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표준오차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Klein &

www.kci.go.kr

Moosbrugger, 2000). 한편, LMS 접근에서는 기존의 구조방적식 모형과 달리 기저 모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로서 적합도 지수(예: RMSEA, CFI, TLI 등)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Loglikelihood와 ACI, BIC 등의 정보에 따라 모형 간 비교를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결 과

연구 변인의 일반적 경향성과 상관관계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 우울, 부모의 퍼빙 및 긍정적 정서표현성의 일반적 경향성과 연구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 평균은 .82점(*SD*=.49), 아동의 우울 평균은 1.38점(*SD*=.33), 아버지의 퍼빙은 2.49점(*SD*=.87), 어머니의 퍼빙은 2.44점(*SD*=.85), 아버지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4.05점(*SD*=.77),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4.17점(*SD*=.71)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변량 정규분포성을 살펴본 결과, 각 변인의 왜도 값은 -1.10~.87로 나타났고 첨도 값은 -.26~2.09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Kline, 2016). 다음으로 연구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측정모형 분석

잠재조절구조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문제에 따라 연구모형 1과 연구모형 2의 측정모형을 확인하였다. 연구모형 1은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퍼빙의 잠재조절효과를, 연구모형 2는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의 잠재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모형 1의 측정모형 분석에 투입된 잠재변수는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과 부모의 퍼빙이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17)=40.52(p<.01)$, RMSEA=.05(90% CI [.03-.07]), CFI=.99, TLI=.99, SRMR=.02로 나타났다. 측정변수의 요인부하

표 1. 연구변인 간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1. 백일몽	1							
2. 졸린	.57***	1						
3. 느린/굼뜬	.60***	.61***	1					
4. 아버지 퍼빙	.19***	.67***	.27***	1				
5. 어머니 퍼빙	.19***	.67***	.27***	.80***	1			
6. 아버지 긍정적 정서표현성	-.22***	-.31***	-.27***	-.32***	-.34***	1		
7. 어머니 긍정적 정서표현성	-.17***	-.29***	-.24***	-.29**	-.39***	.84***	1	
8. 아동의 우울	.48***	.62***	.60***	.35***	.37***	.44***	.43***	1

***$p<.001$.

www.kci.go.kr

량을 살펴보면,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은 .83~.94이었고, 부모의 퍼빙은 아버지 .88, 어머니 .91이었다. 연구모형 2의 측정모형 분석에 투입된 잠재변수는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과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이다. 측정모형 적합도 지수는 $\chi^2(17)=39.61$($p<.01$), RMSEA=.05(90% CI [.03-.07]), CFI=.99, TLI=.99, SRMR=.02로 나타났다.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을 살펴보면,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은 .83~.94이었고,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아버지 .93, 어머니 .92이었다. 각 측정모형에서 나타난 요인부하량 값이 최소 .50이상이고 최대 .95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Kline, 2016).

잠재조절구조모형 분석

연구모형 1과 연구모형 2에 대한 잠재조절구조모형(LMS)을 검증하기 위해 상호작용항이 없는 모형과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모형을 비교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 모형에서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Loglikelihood (LL) 검증 통계량을 사용하여 상호작용항이 없는 모형과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모형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때, 차이값(D)은 -2[(상호작용항이 없는 모형의 LL값) −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모형의 LL값)] 식을 통해 계산하며, χ^2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자유 모수의 차이를 고려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다.

먼저 연구모형 1을 살펴보면, 상호작용항이 없는 모형의 LL 값은 -1983.30이고, 상호작용항이 추가된 모형의 LL 값은 -1976.50으로 나타나 D=13.6이다. 연구모형 1의 D값은 자유모수의 차이(28-27)를 고려하여 df=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p=.000) 상호작용항 유무에 따라 두 모형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호작용항 계수값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퍼빙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B=.11, $p<.001$). 다음으로 연구모형 2를 살펴보면, 상호작용항이 없는 모형의 LL 값은 -1746.86이고, 상호작용항이 추가된 모형의 LL 값은 -1742.21로 나타나 D=9.3이다. 연구모형 2의 D값은 자유모수의 차이(28-27)를 고려하여 df=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p=.002) 상호작용항 유무에 따라 두 모형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호작용항 계수값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성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B=-.09, $p<.05$).

각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표 3), 연구모형 1에서 통제 변인은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β=.14, $p<.01$).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β=.69, $p<.001$)과 부모의 퍼빙(β=.20, $p<.001$)이 아동의 우울에 유의한 정적 영

표 2. 연구모형 1과 2의 모형적합도 및 차이 검증

		Loglikelihood (H0)	df	D(df)/p	AIC	BIC
연구모형 1	상호작용항 없는 모형	-1983.30	27	13.6(1) / p=.000	4040.61	4136.48
	상호작용항 있는 모형	-1976.50	28		4009.01	4129.17
연구모형 2	상호작용항 없는 모형	-1746.86	27	9.3(1) / p=.002	3547.71	3663.59
	상호작용항 있는 모형	-1742.21	28		3540.42	3660.58

www.kci.go.kr

표 3. 상호작용항이 있는 연구모형 1, 2의 경로계수

구분	모형	*B*	*S.E.*	*t*	*β*
연구모형 1	인지이탈증후군 → 우울	.40***	.03	12.56	.69
	퍼빙 → 우울	.07***	.02	4.53	.20
	인지이탈증후군 × 퍼빙 → 우울	.11**	.04	3.06	.14
연구모형 2	인지이탈증후군 → 우울	.39***	.03	12.28	.68
	긍정적 정서표현성 → 우울	-.11***	.02	-6.01	-.27
	인지이탈증후군 × 긍정적 정서표현성 → 우울	-.09*	.04	-2.24	-.11

*p<.05, **p<.01, ***p<.001.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퍼빙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우울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 × 부모의 퍼빙 간의 상호작용항은 아동의 우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β=.14, p<.01), 이는 두 변인의 상호작용이 아동의 우울 증상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연구모형 2에서는 통제 변인은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β=.13, p<.05),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이 아동의 우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β=.68, p<.001),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아동의 우울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7, p<.001). 즉,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이 높을수록 아동의 우울은 증가하고,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우울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상호작용항인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 ×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아동의 우울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β=-.11, p<.05). 이는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이 우울에 부정적 영향이 완화됨을 의미한다.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퍼빙 및 긍정적 정서표현성의 조절효과를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조건부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조절변인 값을 특정한 조건(-1*SD*, *M*, +1*SD*)으로 설정하고, 각 수준에서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형 1의 조절효과는 부모의 퍼빙 수준이 높을수록(표 4), 연구모형 2의 조절효과는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성 수준이 낮을수록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표 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퍼빙 수준이 평균보다 -1*SD* 낮은 집단, 평균 집단, 평균보다 +1*SD* 높은 집단 모두에서 95% 신뢰구간 내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퍼빙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이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성 또한 세 조건 모두에서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화됨을

www.kci.go.kr

표 4. 연구모형 1에서 부모의 퍼빙에 따른 조건부 효과

구분	*B*	*S.E.*	*t*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1SD	.39	.03	12.27	.33	.45
M	.40	.03	12.54	.34	.46
+1SD	.41	.03	12.66	.35	.47

표 5. 연구모형 2에서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에 따른 조건부 효과

구분	*B*	*S.E.*	*t*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1SD	.42	.04	11.48	.35	.49
M	.41	.04	11.76	.34	.48
+1SD	.40	.03	11.92	.34	.47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과 우울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이 부모의 퍼빙 및 긍정적 정서표현성과 각각 상호작용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통해 나타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모형 1과 연구모형 2 모두에서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은 우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아동이 가진 ADHD 증상을 통제 변인으로 투입한 후에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 증상은 우울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동이 외부 자극과 분리되어 느리고 지연된 행동과 사고를 보이는 인지이탈증후군이 높을수록 외부와 단절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우울 증상이 높아지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이탈증후군 증상을 지닌 아동일수록 사회적 상황에서 우울감을 더 많이 호소한다는 선행연구(Fredrick et al., 2022; Miller et al., 2025; KocApaydin et al., 2025; Smith et al., 2020)와 유사한 맥락이다. 즉, 인지이탈증후군 증상을 지닌 아동에게 또래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소그룹 활동 및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래 애착 형성을 위한 사회적 기술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다른 임상적 증상들과 우울 간의 관계를 비교한 Burns와 Becker (2021)는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데, ADHD나 적대적 반항장애를 진단받은 아동 중에서 인지이탈증후군을 동시에 보이는 아동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우울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인지이탈증후군이 다른 임상군과 공존하여 나타날 때, 동일한 진단 체계 내에서 병리들의 공존이 나타나는 동형 동반이환은 물론 서로 다른 속성의 병리들이 공존하는 이형 동반이환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는 인지이탈증후군 증상이 다른 내재화 증상들과 동반하여 나타나기 쉽다는 특성이 있기에 교사를 비롯한 전문가와 부모는 아동의 행동적 특성과 기능적 손상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단순한 사춘기적 증상으로 간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한편, 앞서 제시된 선행연구들은 부모 혹은 교사가 평가한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에 관한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아동이

www.kci.go.kr

스스로 지각한 인지이탈증후군 자료를 사용하여 우울과의 유의한 관계를 밝혀낸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부모나 교사로부터 관찰되는 외현적 특성뿐만 아니라 아동 스스로 정의하는 내면의 경험도 우울과 직접적으로 관련됨을 시사한다. 학령 후기 아동이 자신의 내적·외적인 상태를 보다 정확히 알아차림으로써 자율적으로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심리교육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은 부모의 퍼빙과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이 부모의 퍼빙 행동을 높게 지각할수록 인지이탈증후군으로 인한 우울 증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즉,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 증상이 유사한 수준일 때, 부모의 퍼빙을 더 높게 인식하는 아동일수록 상대적으로 우울 수준이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인지이탈증후군 증상을 보이는 아동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분리되어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있어 느리고 지연된 인지적.행동적 반응을 보이는 상태이다. 만약 아동의 부모가 스마트폰에 몰입하여 자녀에게 자극을 주지 않거나 혹은 자녀의 공상을 환기하기 위한 적극적인 소통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아동은 더욱 외부 환경과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되거나 단절되는 경험을 통해 내면의 우울감이 증가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직접적으로 논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몇몇 관련 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ang 등(2020)은 부모의 퍼빙과 청소년 자녀의 낮은 자아존중감 간의 상호작용이 자녀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개인 내적 특성과 부모의 양육 특성이 각각 독립적으로 혹은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퍼빙과 아동의 회복탄력성 간의 상호작용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Li et al., 2022; Yu et al., 2025), 이는 낮은 회복탄력성을 가진 아동일수록 부모의 퍼빙으로 인한 취약성을 보이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정리하면 아동의 개인 내적 취약성은 그 자체로 우울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취약성은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에 따라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동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동의 취약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부모교육이 선행될 필요가 한다. 또한, 놀이와 신체 활동을 통한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부모의 긍정적이며 민감한 반응을 강화함으로써 인지이탈증후군으로 인한 아동의 인지적.행동적 기능 손상을 완화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셋째,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 증상은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성과 상호작용하여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이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인지이탈증후군으로 인한 우울 증상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Fredrick 등(2019)이 어린 시절 부모와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많이 할수록 인지이탈증후군으로 인한 대학생의 우울과 부주의 문제가 완화된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또한, 후속 연구(Fredrick et al., 2022)에서 청소년이 지각하는 학교분위기에 따라 인지이탈증후군과 우울 간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나

www.kci.go.kr

아가 아동의 내적 특성과 가족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문제행동의 심각성을 밝힌 김소영과 김진숙(2014)의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이는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 증상이 가까운 생태학적 환경 내에서의 관계 특성 및 정서적 분위기에 따라 아동의 정신건강에 더욱 복잡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으로 인한 2차 문제인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 가족 간의 긍정적 의사소통과 정서 표현 방식을 증진하는 부모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와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편의 표집을 통해 수집된 것으로 연구의 결과를 학령 후기 아동에 일반화시키는 것에 무리가 있다. 추후에는 표집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아동기 인지이탈증후군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일반화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퍼빙과 정서표현성이라는 부모의 양육 특성만을 주목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개인, 가족, 또래, 학교 등의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아동의 인지이탈증후군과 기능적 손상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다각적인 경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참고문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 **국민관심질병통계.** https://opendata.hira.or.kr/op/opc/olapMfrnIntrslInsInfoTab2.do

김소영, 김진숙. (2014). 가정환경 위험요인과 정서조절이 아동기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상담학회, 15**(3), 1257-1276.

김주련, 송하나. (2018). 어머니와 교사의 정서표현성이 유치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부적 정서성과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발달심리학회, 31**(4), 255-243. https://doi.org/10.35574/KJDP.2018.12.31.4.225

김진주, 조규판. (2012). 청소년의 스트레스, 부모-자녀 의사소통, 우울 및 자살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상담연구, 20**(2), 251-270.

문영경. (2021).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주의조절과 억제통제의 병렬 매개효과 검증 -. **한국영유아보육학, 131**, 113-134. https://doi.org/10.37918/kce.2021.11.131.113

박혜림, 박성옥. (2016). 아동의 학교부적응이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 9**(2), 53-79. http://doi.org/10.47801/KJIMH.09.2.3

유은희, 임미옥. (2006).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7**(6), 97-106.

윤소진, 이명성, 이준우, 홍세희. (2021). 부모의

www.kci.go.kr

스마트폰 과의존이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우울 및 공격성의 순차적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2**(6), 707-720. https://doi.org/10.5723/kjcs.2021.42.6.707

주효은, 김정민, 유선미. (2024). 중학생의 ADHD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모양육태도와 지역사회 지원의 다중가산조절효과. **인지행동치료상담연구, 6**(2), 29-45. https://doi.org/10.22952/kjcbt.2024.6.2.29

초등교사노동조합. (2025.07.09). **아동 우울증 진단, 5년 새 2.4배 증가.** https://www.estu.kr/board/index.html?id=news&no=246.

Bai, Q., Lei, L., Hsueh, F. H., Yu, X., Hu, H., Wang, X.., et al. (2020). Parent-adolescent congruence in phubbing and adolescents' depressive symptoms: A moderated polynomial regression with response surface analyse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75*, 127-135. https://doi.org/10.1016/j.jad.2020.03.156

Barkley, R. A. (2013). Distinguishing sluggish cognitive tempo from ADHD in children and adolescents: Executive functioning, impairment, and comorbidity.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42*(2), 161-173. https://doi.org/10.1080/15374416.2012.734259

Barkley, R. A. (2016). Sluggish cognitive tempo: A (misnamed) second attention disorder?.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55*(3), 157-158. https://doi.org/10.1016/j.jaac.2015.12.007

Barkley, R. A., Willcutt, E., & Jacobson, L. A. (2022). What is the cognitive deficit in sluggish cognitive tempo (SCT)? A review of neuropsychological research. *The ADHD Report, 30*(2), 1-10. https://doi.org/10.1521/adhd.2022.30.2.1

Becker, S. P., Burns, G. L., Smith, Z. R., & Langberg, J. M. (2020). Sluggish cognitive tempo in adolescents with and without ADHD: Differentiation from adolescent-reported ADHD inattention and unique associations with internalizing domain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8*(3), 391-406. https://doi.org/10.1007/s10802-019-00603-9

Becker, S. P., Epstein, J. N., Burns, G. L., Mossing, K. W., Schmitt, A. P., Fershtman, C. E., et al. (2022). Academic functioning in children with and without sluggish cognitive tempo.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95*, 105-120. https://doi.org/10.1016/j.jsp.2022.10.001

Becker, S. P., Willcutt, E. G., Leopold, D. R., Fredrick, J. W., Smith, Z. R., Jacobson, L. A., et al. (2023). Report of a work group on sluggish cognitive tempo: Key research directions and a consensus change in terminology to

www.kci.go.kr

cognitive disengagement syndrom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62*(6), 629-645. https://doi.org/10.1016/j.jaac.2022.07.821

Bernad M. D., Servera M., Becker S. P., & Burns G. L. (2016). Sluggish cognitive tempo and ADHD inattention as predictors of externalizing, internalizing, and impairment domains: A 2-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4*, 771-785. https://doi.org/10.1007/s10802-015-0066-z

Bernad M., Servera M., Grases G., Collado S., & Burns G. L. (2014). A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the external correlates of sluggish cognitive tempo and ADHD-inattention symptoms dimension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2*(7), 1225-1236. https://doi.org/10.1007/s10802-014-9866-9

Burns, G. L., & Becker, S. P. (2021). Sluggish cognitive tempo and ADHD symptoms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US children: Differentiation using categorical and dimensional approaches.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50*(2), 267-280. https://doi.org/10.1080/15374416.2019.1678165

Burns, G. L., Servera, M., Bernad, M. D. M., Carrillo, J. M., & Cardo, E. (2013). Distinctions between sluggish cognitive tempo, ADHD-IN, and depression symptom dimensions in Spanish first-grade children.*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42*(6), 796-808. https://doi.org/10.1080/15374416.2013.838771

Camprodon-Rosanas, E., Batlle, S., Estrada-Prat, X., Aceña-Díaz, M., Petrizan-Aleman, A., Pujals, E., et al. (2016). Sluggish cognitive tempo in a child and adolescent clinical outpatient setting. *Journal of Psychiatric Practice, 22*(5), 355-362. https://doi.org/10.1097/PRA.0000000000000177

Christina, S., Magson, N. R., Kakar, V., & Rapee, R. M. (2021). The bidirectional relationships between peer victimization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school-aged children: An updated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85*, 101979. https://doi.org/10.1016/j.cpr.2021.101979

Cytryn, L., & McKnew D. H. (1972). Proposed classification of childhood depress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9*(2), 149-155. https://doi.org/10.1176/ajp.129.2.149

Fredrick, J. W., Langberg, J. M., & Becker, S. P. (2022). Longitudinal association of sluggish cognitive tempo with depression in adolescents and the possible role of peer victimization. *Research on Child*

www.kci.go.kr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50(6), 809-822. https://doi.org/10.1007/s10802-022-00923-3

Fredrick, J. W., Luebbe, A. M., Mancini, K. J., Burns, G. L., Epstein, J. N., Garner, A. A., et al. (2019). Family environment moderates the relation of sluggish cognitive tempo to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inattention and depress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5*(1), 221-237. https://doi.org/10.1002/jclp.22703

Garner, A. A., Marceaux, J. C., Mrug, S., Patterson, C., & Hodgens, B. (2010). Dimensions and correlates of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nd sluggish cognitive tempo.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8*, 1097-1107. https://doi.org/10.1007/s10802-010-9436-8

Gorrese, A. (2016). Peer attachment and youth internalizing problems: A meta-analysis. *Child & Youth Care Forum, 45*, 177-204. https://doi.org/10.1007/s10566-015-9333-y

Jamnik, M. R., & DiLalla, L. F. (2019). Health outcomes associated with internalizing problems in early childhood and adolescence. *Frontiers in psychology, 10*, 427381. https://doi.org/10.3389/fpsyg.2019.00060

Koc Apaydin, Z., Kasak, M., Karakaya, O., Ogutlu, H., Ugurlu, M., & McNicholas, F. (2025).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disengagement syndrome in children and cognitive disengagement syndrome, depression, and anxiety levels in their parents. *Journal of Attention Disorders, 29*(7), 503-514. https://doi.org/10.1177/10870547251323029

Lee, S. Y., Burns, G. L., Snell, J., & McBurnett, K. (2014). Validity of the sluggish cognitive tempo symptom dimension in children: Sluggish cognitive tempo and ADHD-inattention as distinct symptom dimension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2*, 7-19. https://doi.org/10.1007/s10802-013-9714-3

Li, B., Wang, P., Xie, X., Chen, Y., Wang, W., Liu, C., et al. (2022). Father phubbing and adolescents' depressive symptoms: perceived father acceptance as a mediator and resilience as a moderator. *The Journal of Psychology, 156*(5), 349-366. https://doi.org/10.1080/00223980.2022.2044745

Lindsey, E. W., Caldera, Y. M., & Rivera, M. (2013). Mother-child and father-child emotional expressiveness in Mexican-American families and toddlers' peer interaction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3*(3-4), 378-393. https://doi.org/10.1080/03004430.2012.711589

Luebbe, A. M., & Bell, D. J. (2014). Positive

www.kci.go.kr

and negative family emotional climate differentially predict youth anxiety and depression via distinct affective pathway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2*(6), 897-911. https://doi.org/10.1007/s10802-013-9838-5

Malmquist, C. P. (1977). Childhood depression: A clinical and behavioral perspective. In Schulterbrandt J. G., & Raskin A. (Eds.), *Depression in childhood: Diagnosis, treatment, and conceptual models* (pp. 33-59). Raven Press.

Mayes, S. D., Calhoun, S. L., Kallus, R., Baweja, R., & Waschbusch, D. A. (2024). Cognitive disengagement syndrome (formerly sluggish cognitive tempo) and comorbid symptoms in child autism, ADHD, and elementary school sample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46*(3), 857-865. https://doi.org/10.1007/s10862-024-10145-0

Milich, R., Balentine, A. C., & Lynam, D. R. (2001). ADHD combined type and ADHD predominantly inattentive type are distinct and unrelated disorders.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8*(4), 463-488.

Miller, M. C., Baron, O. R., Epstein, J. N., Tamm, L., Nyquist, A. C., & Becker, S. P. (2025). Cognitive disengagement syndrome and depressive symptoms in early adolescents: Examining the moderating role of a negative interpretation bia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66*(9), 1366-1375. https://doi.org/10.1111/jcpp.14156

Morelen, D., Jacob, M. L., Suveg, C., Jones, A., & Thomassin, K. (2013). Family emotion expressivity, emotion regulation, and the link to psychopathology: Examination across race.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104*(2), 149-166. https://doi.org/10.1111/j.2044-8295.2012.02108.x

Nelson, T. D., Smith, T. R., Hurley, K. D., Epstein, M. H., Thompson, R. W., & Tonniges, T. F. (2013). Association between psychopathology and physical health problems among youth in residential treatment. *Journal of Emotional Behavior Disorder, 21*(2), 150-160. https://doi.org/10.1177/1063426612450187

Pace, U., D'Urso, G., & Zappulla, C. (2019). Internalizing problems as a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ow effortful control and internet abuse in adolescence: A three-wave longitudinal stud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92*, 47-54. https://doi.org/10.1016/j.chb.2018.10.030

Rapee, R. M., Oar, E. L., Johnco, C. J., Forbes, M. K., Fardouly, J., Magson, N.

www.kci.go.kr

R., & Richardson, C. E. (2019). Adolescent development and risk for the onset of social-emotional disorders: A review and conceptual model.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123*, 103501. https://doi.org/10.1016/j.brat.2019.103501

Sentse, M., Prinzie, P., & Salmivalli, C. (2017). Testing the direction of longitudinal paths between victimization, peer rejection, and different yypes of in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5*(5), 1013-1023. https://doi.org/10.1007/s10802-016-0216-y

Servera, M., Sáez, B., Burns, G. L., & Becker, S. P. (2018). Clinical differentiation of sluggish cognitive tempo and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in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7*(8), 818-829. https://doi.org/10.1037/abn0000375

Smith, Z. R., Zald, D. H., & Lahey, B. B. (2020). Sluggish cognitive tempo and depressive symptom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redict adulthood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8*(12), 1591-1601. https://doi.org/10.1007/s10802-020-00692-x

Stockdale, L. A., Coyne, S. M., & Padilla-Walker, L. M. (2018). Parent and child technoference and socioemotional behavioral outcomes: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tudy of 10-to 20-year-old adolescen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88,* 219-226. https://doi.org/10.1016/j.chb.2018.06.034

Wang, X., & Qiao, Y. (2022). Parental phubbing, self-esteem, and suicidal ideation among Chinese adolescents: A longitudinal mediational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51*(11), 2248-2260. https://doi.org/10.1007/s10964-022-01655-9

Wang, X., Gao, L., Yang, J., Zhao, F., & Wang, P. (2020). Parental phubbing and adolescents' depressive symptoms: Self-esteem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s modera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9*(2), 427-437. https://doi.org/10.1007/s10964-019-01185-x

Yu, B., Tong, J., & Guo, C. (2025). Association between parental phubbing and adolescents' depression: Roles of family cohesion and resilienc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69*, 108082.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24.108082

www.kci.go.kr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25, Vol. 38, No. 3, 41-58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Disengagement Syndrome and Depression in Children: The Latent Moderating Role of Parenting Characteristics

Hwajin Lee[1] Youngsook Kong[2] Jiyoung Lim[3]

Major in Child & Family Studies, School of Child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ecturer[1]
Major in Child & Family Studies, School of Child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ecturer[2]
Major in Child & Family Studies, School of Child Studies · CBA (Center for Beautiful Ag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3]

This study deepens our understanding of CDS examining the latent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phubbing and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CDS and depressive symptoms. Data were collected from 529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grades 4 to 6.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latent moderat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conducted using SPSS 27.0 and Mplus 8.11.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1) children's CDS significantly positively affected their depressive symptoms, (2) parental phubbing significantly moderated the association between CDS and depression, and (3) parental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also significantly moderated this relationship. These findings identify CDS as an intrapersonal vulnerability factor for childhood depression, and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family- and parent-focused intervention strategies to promote children's mental health.

Key words : cognitive disengagement syndrome, depression, phubbing, emotional expressiveness, latent moderated structural equation

www.kci.go.kr